

##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발달과 태도변화

노 경 란

방 희 정<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가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탈 편견적 메시지를 담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일학년(6세) 117명과 사학년(10세) 117명을 대상으로 명시적 태도검사, 명시적 선호도검사와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사용하여, 각 인종(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내집단선호/외집단 편견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결과, 학년증가에 따라 명시적 수준에서는 내집단 선호가 감소하고 외집단선호가 증가하는 반면, 암묵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흑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초등학교 일학년과 사학년생 모두 명시적 태도검사에서 흑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명시적 선호도검사와 IAT에서는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 태도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이론 및 실제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인종, 명시적, 암묵적, 태도, 한국대학생, 외국대학생

<sup>†</sup> 교신저자 :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hjbang@ewha.ac.kr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0명 중 2명꼴로 외모 차이로 인해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영달, 2006). 초등학교 시기에는 인종이 아동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Williams & Morland, 1976), 이 시기의 왕따 경험은 일생에 걸쳐 개인의 성격 및 대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및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성과 집단 간 상호이해를 강조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수집단 아동들로 하여금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 사회의 적응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비단 이주자나 다문화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이들을 받아들이는 주류사회가 직면한 과제로서 상호적 수용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Berry, 2001).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형성 및 발달과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종에 대한 태도변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 인종에 대한 태도발달이론

태도는 두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 명시

적 태도는 의식적이고 쉽게 보고할 수 있는 반면, 암묵적 태도는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의식적인 자각으로부터 감춰져 있어서 통제가 어려운 강력한 태도이다(Aronson, Wilson, & Akert, 2005).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행동적 수준(Dovidio, Kawakami, & Gaertner, 2002)에서 뿐만 아니라, 신경계 수준에서 구분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Phelps 등, 2000; Cunningham 등, 2004).

인종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Clark과 Clark의 인형 연구를 시작으로, 그림, 사진을 가지고 아동들의 내집단과 외집단 선호도를 측정함으로써 인종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였다(Banaji, Baron, Dunham, & Olson, 2007). 그 후 Aboud(1988)는 아동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해하려면 성인과 달리 학년에 따른 아동의 정서, 인지와 사회적 기능 수준을 이해해야 된다면서 발달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인종에 대한 태도를 사회와 인지발달적인 변화의 결과로 보는 사회인지적 접근방법(Aboud, 1988)과, 사회정체성이론(Tajfel과 Turner, 1979) 및 자기범주화이론(Turner, Hogg, Oakes, Reicher과 Wetherell, 1987)을 통합한 접근 방법이 가장 지배적이다.

사회인지적 이론(Aboud, 1988)에 따르면, 인종에 대한 사회화 과정에 아동의 인지 기능이 발달 단계마다 질적으로 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사회 인지적 접근이론에서는 아동이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면서 편견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서 편견이 “불가피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피아제와 Weil(1951)은 편견 발달의 3단계를 주장하였는데, 첫 단계인 4-7세에는 아동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인종이나 국가의 집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 집단에 대한 모

든 형태의 선호는 개인적인 고려에 기반을 둔다고 한다. 두 번째는 7-10세에 해당되는 단계로 자신을 탈중심화할 수 있으나 “사회 중심적”으로 되어서 내집단에 우호주의와 외집단 편견을 보인다. 세 번째 단계인 10-15세에는 인종에 대한 탈 중심화가 증가하고 정보를 통합하게 되어, 좀 더 현실적으로 인종과 문화집단을 인식하면서 내집단 차이와 집단 간에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고 보았다.

Aboud(1988)는 피아제보다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인종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과 아동의 초점이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 이동하는 두 가지 과정이 중복되는 발달 순서의 산물로 보았다. 그녀는 인종적인 선호와 편견은 문화적으로 우세한 집단의 아동인 경우에 4세부터 나타나서 5-7세에 가장 절정을 이루다가, 9세가 지나면서 점차 조작적 사고의 획득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편견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인지접근이론은 몇몇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었다(Doyle & Aboud, 1995).

사회정체성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인종에 대한 선호란 4세부터 발달해서 인종에 대한 자각과 함께 증가하며 특정 집단에 속한 결과로 본다. 반면에, 편견이란 자존감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기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동기와 연관된다고 본다(Nesdale, 2000). 사회인지적 접근과는 반대로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편견과 내집단 선호가 발달과 함께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집단 선호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Aboud(1988)의 주장과는 달리 7-12세 사이의 아동들은 내집단 선

호가 줄어들지 않고 실제로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 정체성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7세 후 다수집단 아동들이 내집단 선호가 감소하는 것은 측정평가가 직접적이어서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를 피하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덜 직접적인 절차를 사용한 연구결과, 편견은 학년 증가에 따라 감소하지 않았으며 보존을 이해하는 아동들에게서도 역시 내집단에 대해 선호가 지속되는 것이 관찰되었다(Vaughan, 1987).

인종에 대한 태도 발달에 관한 분야에서는 정의나 측정방법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일관성 있는 일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사회인지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에서 모두 일치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 Lo Coco, Inguglia와 Pace(2005)는 사회인지이론이 인지발달과 인종태도의 발달 간에 관계를 연구하는데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유용한 반면에, 사회정체성이론은 인종태도와 관련하여 집단 간 역동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발달이론

인지발달과 함께 인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한다는 사회인지적 이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연령증가와 함께 더 많은 차별행동이 관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태도의 암묵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편견적 태도란 무의식적 정신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Wegner, 2002)와 태도 측정 시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Banaji, Baron, Dunham와 Olson, 2007).

암묵적인 태도발달에 관한 이론은 암묵적 태도가 서서히 습득되는 체제로 보는 점진적 학

습모델과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 일생에 걸쳐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는 초기 습득모델로 나눌 수 있다(Dunham, Baron, Banaji, 2008).

Baron과 Banaji(2006)는 아동용 암묵적 연합검사를 개발하여 백인아동 6세, 10세 및 성인에게 실시한 결과, 6세의 어린 아동에게서도 암묵적으로 백인을 선호하는 강한 내집단 선호와 흑인을 비 선호하는 편견(bias)을 나타내었으며, 자기보고식 태도에서도 같은 편견을 보였다. 10세와 성인에서도 암묵적으로 같은 정도의 인종 편견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인종에 대한 태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덜 편견적으로 되었으며, 성인에게서는 백인과 흑인에 대한 선호도가 같은 수준이었다. 즉 인종에 대한 태도가 암묵적인 발달과 명시적인 발달에서 비대칭적이었으며, 명시적인 태도는 점점 더 평등주의적으로 되었지만 암묵적인 태도는 내집단 선호경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 10세를 기점으로 암묵적인 태도와 명시적인 태도의 평균 수준이 달라진다고 제안하였다.

Dunham, 등(2008)은 내집단 선호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위의 실험에서 다수 집단(백인)의 3세, 6세, 10세, 성인 간에 암묵적 연합검사에서의 효과크기(D점수)가 통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암묵적 태도는 발달적으로 안정된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Dunham, 등(2008)은 암묵적 태도가 서서히 발달해간다는 slow learning model을 반박하였으며, 사회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생애 초기에 나타나서 일생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이른 시기에 외집단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관점을

내재화시키며, 사회적 지위나 힘과 위계를 일찍 내재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암묵적 태도발달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Baron과 Banaji, 2006), 다수집단인 경우 5-6세에 이미 암묵적으로 편견적 태도가 형성되고, 성인기에도 안정적인 유형을 보이며, 10세 전후에는 인종에 대해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인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고정관념, 편견, 차별과 같은 여러 현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측정방법보다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암묵적인 형태로 측정하는 추세이다.

###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측정방법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질문지를 통해 사회적 태도를 측정하며, 특히 집단에 대한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각 집단에 대해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감(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에 포함시키고 싶은 정도)을 평가하는 평정척도들이 있다(김혜숙, 2007).

명시적 선호도검사는 암묵적으로 측정한 결과들과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척도이다.

최근에는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규범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줄이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각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측정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암묵적인 측정은 초기에 점화(priming)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범주화 현상이나 내집단 우호현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이후 Greenwald, McGhee, 및 Schwartz(1998)는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를

고안하여 대상(기억 속에 있는 개념들)의 정신적 표상들 간에 자동적인 연합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최근 메타분석에 의하면 IAT는 전통적인 명시적 자기보고식 검사보다 차별과 같은 행동을 더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wald, Poehlman, Uhlmann과 Banaji, 2008).

####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프로그램

다문화 교육이란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써 지원하고 확장하려는 교육으로 다른 문화를 단순히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교육부, 1999). 다문화 교육은 접근 방법에 있어서 강조점에 따라 대체로 문화이해적 접근, 인권적 접근, 반차별적 접근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영옥, 2002).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문화, 협력, 탈 편견, 정체성 형성, 평등성, 다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영옥, 2002).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능력, 학년,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 구성, 성, 인종, 성적 지향과 같은 영역에서의 편견들을 다룰 수 있다(Hall과 Rhomberg, 1995).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과 다문화 가정 유아에 관한 실태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 뿐만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탈 편견적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실제 다문화 교육활동을 실시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박지희(2002)는 탈 편견적인 주제의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5주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유아의 태도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도서 활동 외에도 음악(함희주, 2003), 미술(이수경, 김정, 이주연, 2002), 요리 활동(이기숙, 이경미, 강경아, 2001), 다양한 형태의 대, 소집단 활동

을 통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최미숙, 김경숙, 윤현숙, 2008)이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시도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탈 편견적 다문화프로그램은 필요가 절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로그램 제작 및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명시적 수준 뿐 만 아니라 암묵적 수준의 태도까지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 뿐 만 아니라 암묵적 태도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6세 아동들(초등학교 일학년)과 인종에 대한 태도가 명시적 수준과 암묵적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0세 아동(초등학교 사학년)을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탈 편견적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로 구성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변화에 대한 효과검증을 하였다.

####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연구 1은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인 태도가 학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년변수는 인종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며, 암묵적인 태도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시기로 알려진 초등학교 일학년 아동(만 6세), 명시적인 태도와 암묵적인 태도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로 알려진 초등학교 4학년 아동(만 10세)의 두 수준으로 학년을 구분하였다. 연구 2에서는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에 변화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1. 한국의 초등학생은 각 인종(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명시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을 보일 것인가?

1-1. 명시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은 학년(초등 일학년/사학년)에 따라 변화할 것인가?

1-2. 명시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은 성별에 따라 변화할 것인가?

2. 한국의 초등학생은 한국인과 대비하여 각 인종(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을 보일 것인가?

2-1.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은 학년에 따라 변화할 것인가?

2-2.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은 성별에 따라 변화할 것인가?

**연구 문제 2**

1. 탈 편견적 메시지를 주제로 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여부에 따라 아동들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탈 편견적 메시지를 주제로 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여부에 따라 아동들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프로그램 내용(1,2,3일차)에 따라서 아동들은 지식, 정서, 태도 면에서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보일 것인가?

**연구 1**

**방법**

**연구대상**

연구 1에 참여한 아동은 서울에 소재한 이대부속초등학교의 1학년(만 6세) 아동 117명(남: 60명, 여: 57명)과 4학년(만 10세) 아동 117명(남: 60명, 여: 57명)으로, 정규 컴퓨터 실습시간에 실시되었다. 연구 2는 연구 1의 피험자였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마다 두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각 학년마다 나머지 다른 두 학급은 통제집단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아동용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본 연구에서 실시된 아동용 암묵적 연합검사(IAT)는 백인-한국인 IAT, 흑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한국인 IAT의 총 3세트이다. 각 IAT는 성인용과 동일하게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피험자마다 3세트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단계별로 반복시행횟수를 원래 프로그램화된 시행횟수의 절반으로 축소시켜 실시하였다. 각 IAT 세트 내에서는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피험자별로 역균형화 되어있다. 아울러 각 단계의 첫 번째 시행은 예비시행으로서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오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X' 표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을 해야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프로그램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용 암묵적 연합검사는 표적자극으로 아동의 칼라사진을 각 인종마다 (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 남녀별로 각각 3장씩 사용하였다. 실시 이전에 대학원

생 20명에게 사진자극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호감도가 크게 다른 사진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인종집단 간의 호감도가 유사하도록 하였다. 속성자극으로 긍정개념(기쁨, 사랑, 즐거움, 행복, 멋진, 평화로운)과 부정개념(짜증, 미움, 화난, 상처, 무서운, 역겨운)의 단어 자극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Banaji(2006)가 만든 아동용 IAT검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속성자극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시 전 파워포인트를 통해 속성자극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주 실험자와 함께 읽어서 숙달토록 하였다. 컴퓨터 키보드는 여러 색상의 스티커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분석대상은 최초의 조합과제(양립할 수 있는 과제)와 역으로 된 조합과제(양립할 수 없는 과제) 간에 평균 잠재반응시간의 차이가 종속변인이 되며 반응시간이 길수록 인지적인 간섭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한다.

### 명시적 검사 질문지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된 명시적 선호도 검사.**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제시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둘 씩 짝 지워 만든 사진첩을 피험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험자에게 “누가 더 좋은가?”라는 질문을 한 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안지에 체크하게 한다.

**명시적 태도검사(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 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의 각 인종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정척도이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각 인종집단을

매번 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인종에 대한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종집단부터 1에서 4까지 순서를 매기도록 하였다. 이 순위를 역처리 한 후 점수화하였다. 네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할수록 그 집단에 대한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연구절차

피험가가 컴퓨터 과제에 익숙하도록 먼저 연습용 과제인 간략형 흑인-동남아 아동 IAT를 수행하였다. 각 피험자마다 아동용 암묵적 연합검사를 총 3세트씩(백인-한국인 흑인-한국인, 동남아인-한국인 IAT) 수행하였으며, IAT 검사를 마친 후에는 인종에 대한 아동용 명시적 태도검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실험 진행은 아동들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실험자가 교실 앞에서 PPT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5-7명의 보조연구자가 각각 5명의 초등학생들을 담당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암묵적 연합검사와 명시적 태도 질문지를 수행할 때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를 마친 후, 명시적 태도검사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 자료 분석

첫째로,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산출된 결과 처리는 평균반응시간에서 최초의 조합과제의 평균반응시간을 뺀 차이 값을 각 블록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어진 값, 즉, D라는 IAT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사용하였다(Greenwald,

표 1. 명시적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인종	학년	성별	호감도	신뢰도	친구 삼는 정도	내집단 포함정도
			M (SD)	M (SD)	M (SD)	M (SD)
한국인	초등 일학년	남	3.90 (.45)	3.74 (.71)	3.80 (.59)	3.73 (.80)
		여	3.89 (.46)	3.78 (.50)	3.46 (.99)	3.55 (.99)
		전체	3.89 (.45)	3.76 (.62)	3.63 (.82)	3.64 (.90)
	초등 사학년	남	3.76 (.57)	3.03 (1.18)	3.55 (.84)	3.42 (.91)
		여	3.58 (.80)	3.39 (1.00)	2.96 (1.24)	3.23 (1.04)
		전체	3.67 (.70)	3.21 (1.10)	3.26 (1.09)	3.33 (.98)
백인	초등 일학년	남	2.47 (.86)	2.34 (.76)	2.51 (.84)	2.48 (.81)
		여	2.67 (.75)	2.63 (.83)	2.72 (.88)	2.60 (.82)
		전체	2.56 (.81)	2.48 (.81)	2.61 (.86)	2.54 (.81)
	초등 사학년	남	2.74 (.83)	2.36 (1.03)	2.84 (.91)	2.93 (.85)
		여	2.84 (.88)	2.21 (.96)	3.09 (.87)	3.00 (.91)
		전체	2.79 (.85)	2.29 (1.00)	2.97 (.90)	2.97 (.87)
흑인	초등 일학년	남	1.66 (.78)	1.84 (.97)	1.62 (.83)	1.68 (.86)
		여	1.65 (.73)	1.91 (.92)	1.81 (.95)	2.00 (1.00)
		전체	1.65 (.76)	1.88 (.94)	1.72 (.89)	1.83 (.94)
	초등 사학년	남	1.55 (.80)	2.43 (1.17)	1.71 (.82)	1.80 (.96)
		여	1.77 (.95)	2.53 (1.05)	2.00 (.94)	2.00 (1.02)
		전체	1.66 (.88)	2.48 (1.11)	1.85 (.89)	1.90 (.99)
동남아인	초등 일학년	남	1.98 (.74)	2.07 (.92)	2.07 (.81)	2.11 (.82)
		여	1.80 (.74)	1.69 (.77)	2.00 (.85)	1.85 (.79)
		전체	1.89 (.74)	1.88 (.87)	2.04 (.83)	1.98 (.82)
	초등 사학년	남	1.95 (.74)	2.17 (.90)	1.90 (.79)	1.85 (.78)
		여	1.81 (.67)	2.89 (.88)	1.95 (.87)	1.77 (.76)
		전체	1.88 (.70)	2.04 (.90)	1.92 (.83)	1.81 (.77)

\* p<.05, \*\* p<.01, \*\*\* p<.001

Nosek, 및 Banaji, 2003). 예를 들어, 백인-한국인 IAT에서 산출된 백인선호도 D값이 0보다 클수록 백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나타내

며, D값이 0이하이면 백인보다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음을 나타낸다.

산출된 3가지 D점수(IAT효과크기) 즉, 백인



선호도 D점수, 흑인선호도 D점수, 동남아인선호도 D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검자의 학년 및 성별에 따라 한국인과 대비된 백/흑/동남아인 인종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학년) x 2(성별) 이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가 되도록 실시된 명시적 선호도검사에서는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한 횟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뒤,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해보기 위해서 각 점수에서 평균점수를 제하여 0점 이상이면 백/흑/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0점 이하이면 한국인선호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산출된 3종류의 명시적 선호도점수를 종속변수로 해서, 2(학년) x 2(성별) 이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로, 평정척도인 명시적 태도검사를 통해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감(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네 영역에서 한국인/백/흑/동남아인에 대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각 인종에 대한 순위점수를 역처리한 후 평정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표집수가 큰 경우 순위점수와 평정점수가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명시적 태도점수들을 종속변수로 삼고, 2(학년) x 2(성별) 이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명시적 태도검사(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

학년 및 성별에 따라서 한국인/백/흑/동남아

인 집단에 대한 명시적 태도(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가 어떻게 다른 지 이원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호감도

**전체.** 한국 초등학생의 각 인종에 대한 호감도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백인>동남아인>흑인 순으로( $M_{\text{한국인호감도}}=3.78$ ,  $M_{\text{백인호감도}}=2.68$ ,  $M_{\text{흑인호감도}}=1.66$ ,  $M_{\text{동남아인호감도}}=1.89$ ),  $p<.001$ , 내집단에 대해 강한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외집단에 대해서는 호감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백인에 대해 높고, 동남아인, 흑인에 대해서 낮았다. 명시적 수준에서 각 인종에 대한 호감도 순위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 결과, 학년별로 종속변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으나 성별과 학년\*성별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다변량 분석 결과, 초등학생은 종속변수인 호감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221)=3.27$ ,  $p<.05$ ). 첫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순위는 초등학교 일학년>사학년 순으로( $M_{\text{초등 일학년}}=3.89$ ;  $M_{\text{사학년}}=3.67$ ,  $p<.01$ ), 학년 증가에 따라 내집단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초등학생의 백인에 대한 호감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F(2, 343)=4.55$ ,  $p<.05$ ). 외집단인 백인에 대한 태도는 초등학교 일학년<사학년 순으로( $M_{\text{초등 일학년}}=2.6$ ;  $M_{\text{사학년}}=2.8$ ,  $p<.05$ ), 학년 증가에 따라 백인 호감도 순위는 증가하였다

셋째로,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호감도 순위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명시적 태도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측정치	학년			성별			학년*성별			
	다변량 (Pillais)	$\eta^2$	단변량F	다변량 (Pillais)	$\eta^2$	단변량F	다변량 (Pillais)	$\eta^2$	단변량F	
호감도	한국인		.04	8.2*		.01	1.44		.01	1.2
	백인	<b>3.27*</b>	.02	4.2*	1.53	.01	1.86	0.64	.00	.21
	흑인	(3,221)	.00	.01		.00	0.96		.01	1.09
	동남아인		.00	.02		.01	2.94		.00	.06
신뢰도	한국인		.09	21.45***		.01	2.67		.01	1.77
	백인	<b>7.46***</b>	.01	2.80	<b>2.96*</b>	.00	0.31	1.32	.02	3.30
	흑인	(3,220)	.08	19.24***		.00	0.33		.00	.01
	동남아인		.01	1.83		.04	8.18**		.00	.2
친구삼고 싶은 정도	한국인		.04	8.72**		.06	13.37***		.00	.98
	백인	<b>4.97**</b>	.04	8.97**	<b>5.11**</b>	.02	3.79	0.34	.00	.02
	흑인	(3,218)	.01	1.33		.02	4.26*		.00	.17
	동남아인		.01	1.06		.00	0.01		.00	.31
내집단 포함 정도	한국인		.03	6.28*		.01	2.31		.00	.00
	백인	<b>5.53**</b>	.06	14.03***	2.14	.00	.70	0.26	.00	.06
	흑인	(3,219)	.00	.2		.02	4.19		.00	.21
	동남아인		.01	2.55		.01	2.51		.00	.75

\* p<.05, \*\* p<.01, \*\*\* p<.001

**성별.** 성별과 성별\*학년의 상호작용에 따른 호감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뢰도**

**전체.** 한국 초등학생의 각 인종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백인>동남아인>흑인 순으로 신뢰도 순위가 높아( $M$  한국인신뢰도=3.49,  $M$  백인신뢰도 =2.39,  $M$  흑인신뢰도= 2.18,  $M$  동남아인신뢰도 = 2.10,  $p<.001$ , 내집단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표현했다. 외집단에 대해서는 백인에 대해 가장 신뢰도 순위가 높았고 흑인

과 동남아인에 대해 신뢰도 순위가 가장 낮았으며 흑인과 동남아인 신뢰도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인종에 대한 신뢰도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 결과, 학년과 성별로 종속변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다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신뢰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220) =7.46$ ,  $p<.001$ . 첫째,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 순위는 학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초등 일학년>사학년( $M_{\text{초등 일학년}}=3.76$ ;  $M_{\text{사학년}}=3.21$ ,  $p<.001$ ) 순으로, 내집단인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학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백인에 대한 신뢰도는 초등 일학년과 사학년 간에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셋째, 흑인에 대한 신뢰도는 초등 일학년<사학년 순으로 ( $M_{\text{초등 일학년}}=1.88$ ;  $M_{\text{사학년}}=2.48$ ,  $p<.001$ ), 학년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넷째, 동남아인에 대한 신뢰도는 초등 일학년과 사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성별에 따른 다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신뢰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220)=2.96$ ,  $p<.05$ ). 성별에 따른 신뢰도의 차이는 동남아인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남아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 $M_{\text{남자}}=2.12$ ,  $M_{\text{여자}}=1.79$ ,  $p<.001$ ).

#### 친구삼고 싶은 정도의 차이

**전체** 한국 초등학생의 각 인종에 대한 친구삼고 싶은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백인>동남아인>흑인 순으로 친구삼고 싶은 정도가 높아 ( $M_{\text{한국인신뢰도}}=3.45$ ,  $M_{\text{백인신뢰도}}=2.79$ ,  $M_{\text{흑인신뢰도}}=1.79$ ,  $M_{\text{동남아인신뢰도}}=1.98$ ,  $p<.001$ , 내집단에 대한 강한 선호를 나타냈다. 외집단에 대해서는 친구삼고 싶은 정도가 백인>동남아인>흑인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친구삼고 싶은 정도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 결과, 학년과 성별에 따른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으며 학년\*성별 상호작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친구삼고 싶은 정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F(3, 218)=4.97$ ,  $p<.01$ ). 첫째, 한국인을 친구삼고 싶은 정도는 초등학교 일학년>사학년 순으로 ( $M_{\text{초등 일학년}}=3.63$ ;  $M_{\text{사학년}}=3.26$ ,  $p<.01$ ), 학년증가에 따라 명시적 수준에서 내집단을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백인을 친구삼고 싶어 하는 정도는 초등학교 일학년<사학년 순으로 ( $M_{\text{초등 일학년}}=2.62$ ;  $M_{\text{사학년}}=2.97$ ,  $p<.01$ ), 학년증가에 따라 백인을 친구삼고 싶어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셋째로, 흑인과 동남아인을 친구삼고 싶어 하는 정도는 초등 일학년과 사학년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친구삼고 싶은 정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F(3, 218)=5.11$ ,  $p<.01$ ). 한국인을 친구삼고 싶은 정도의 우선순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면에( $M_{\text{남자}}=3.68$ ,  $M_{\text{여자}}=3.21$ ,  $p<.001$ ), 흑인을 친구삼고 싶어하는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M_{\text{남자}}=1.66$ ,  $M_{\text{여자}}=1.91$ ,  $p<.05$ ).

#### 내집단 포함 정도의 차이

**전체.**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내집단 포함 정도에서 한국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 순으로 내집단 포함 정도가 높았다( $M_{\text{한국인신뢰도}}=3.45$ ,  $M_{\text{백인신뢰도}}=2.79$ ,  $M_{\text{흑인신뢰도}}=1.79$ ,  $M_{\text{동남아인신뢰도}}=1.98$ ),  $p<.001$ . 즉, 한국인은 학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한국인을 내집단으로 포함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외집단에 대해서는 백인을 내집단으로

로 포함 정도가 높은 반면, 동남아인과 흑인을 내집단으로 포함 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동남아인과 흑인의 내집단 포함 정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내집단 포함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에 따른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으며 성별, 학년\*성별 상호작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다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내집단 포함 정도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 219) = 5.53, p < .001$ . 첫째, 한국인을 내집단 포함하는 정도의 우선순위는 학년에 따라 초등 일학년 > 사학년 순으로 ( $M_{초등 일학년} = 3.64; M_{사학년} = 3.33, p < .05$ ), 학년 증가에 따라 한국인을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백인을 내집단 포함 정도는 초등 일학년 < 사학년 순으로 ( $M_{초등 일학년} = 2.54; M_{사학년} = 2.97, p < .001$ ), 학년 증가에 따라 백인을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의 우선순위가 더 높았다. 셋째, 흑인과 동남아인을 내집단으로 포함하는 정도는 초등 일학년과 사학년 아동 간에 차이가 없었다.

**성별.** 내집단 포함 정도는 성별이나 학년\*성별 상호작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약해볼 때, 한국 초등학생들의 각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들은 내집단인 한국인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였으며, 외집단에 대해서는 백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이고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해

가장 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명시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들은 학년증가에 따라 명시적 수준에서 내집단에 대한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의 우선순위는 모두 감소를 보인 반면, 외집단 중 백인에 대한 호감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는 더 증가하였으며, 흑인에 대한 신뢰도도 학년증가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 명시적 선호도검사

명시적 수준에서 백인/흑인/동남아인과 한국인을 각각 대조하여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 초등학생의 명시적 선호도는 모두 음수가 되어 내집단 선호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외집단에 대한 선호도는 백인 > 동남아인, 흑인 순이었다 ( $M_{명시백인선호} = -.18; M_{명시흑인선호} = -.31; M_{명시동남아인선호} = -.28, p < .001$ ). 학년(초등학교 일학년/사학년)과 성별에 따라 명시적 선호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제시하듯이, 학년에 따라 종속변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과 학년\*성별 상호작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 학년변수에 따른 분석 결과, 명시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인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 223) = 4.67, p < .01$ . 종속변수들 중 명시적 수준에서 한국인과 대비된 백인선호도는 초등학교 일학년 < 사학년 순으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 $M_{초등 일학년} = -.026; M_{사학년} = -.010, F(2, 223) = 11.99, p < .001$ ), 흑인과 동남아인 선호도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명시적 선호도와 암묵적 태도의 평균

측정치	학년	성별	명시적	암묵적
			선호도검사 M (SD)	연합검사 M (SD)
백인선호 (백인 vs 한국인)	일	남	-26 (.32)	-26 (.35)
	학	여	-26 (.30)	-39 (.44)
	년	전체	-26 (.31)	-33 (.40)
	사	남	-20 (.35)	-25 (.42)
	학	여	-.00 (.39)	-.34 (.41)
	년	전체	-10 (.38)	-.29 (.41)
흑인선호 (흑인 vs 한국인)	일	남	-.37 (.25)	-.27 (.38)
	학	여	-.31 (.33)	-.38 (.39)
	년	전체	-.34 (.29)	-.32 (.38)
	사	남	-.31 (.33)	-.37 (.44)
	학	여	-.24 (.36)	-.56 (.32)
	년	전체	-.28 (.34)	-.46 (.40)
동남아인 선호 (동남인 vs 한국인)	일	남	-.30 (.31)	-.26 (.37)
	학	여	-.26 (.30)	-.36 (.40)
	년	전체	-.28 (.31)	-.31 (.39)
	사	남	-.32 (.25)	-.27 (.44)
	학	여	-.24 (.32)	-.29 (.38)
	년	전체	-.28 (.29)	-.28 (.41)

\*p<.05, \*\*p<.01, \*\*\*p<.001

암묵적 태도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살펴본 결과, 산출된 모든 점수가 음수로 강한 내집단 선호경향을 나타낸다. 초등학생들의 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 수준은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 동남아인>흑인 순으로 나타났으며(M 백인선호 = -.31 M 흑인선호 = -.39, ; M 동남아인선호 = -.30), p<.001, 백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제시하듯이 학년, 성별과 학년\*성별 상호작용 변수에 따른 암묵적 태도 종속변수 측정치들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종속치에 대해 단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흑인에 대한 선호도는 학년별 F (1, 159) = 5.49, p<.05와 성별 F (1,159) = 5.77,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흑인 선호도에 대해 짝비교를 한 결과, 학년이 증

표 4. 명시적 선호도와 암묵적 연합검사의 다변량분석 결과

측정치	학년	성별	학년*성별		
			다변량 (Pillais)	$\eta^2$	단변량 F
명시적 선호도 검사	백인선호		4.67**	.05	11.99***
	흑인선호		(3,223)	.01	2.33
	동남아인선호			.00	.00
암묵적 연합 검사	백인선호		2.29	.00	.22
	흑인선호		(3,157)	.03	5.49*
	동남아인선호			.00	.28

\*p<.05, \*\*p<.01, \*\*\*p<.001

가할수록 흑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가 암묵적 수준에서 더 증가하였다( $M_{\text{초등 일학년}} = -.32$ ;  $M_{\text{사학년}} = -.46$ ,  $p < .05$ ), 짝비교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암묵적 수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흑인에 대해 더 비선호적 태도를 나타냈다 ( $M_{\text{남자}} = -.32$ ;  $M_{\text{여자}} = -.47$ ,  $p < .05$ ).

### 각 학년별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비교

각 학년별로 인종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 및 암묵적 태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3(학년) x 3(인종)의 2원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에 의한 변수이다(그림 1과 2 참조).

#### 초등학교 일학년생

초등 일학년 아동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외집단인 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명시적 선호도에서 초등학교 일학년 아동은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전반적으로 약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F(2, 352) = 3.29$ ,  $p < .05$ , 백/흑/동남인 선호도 간에 짝비교를 했을 때에는 선호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_{\text{백인선호}} = -.025$ ;  $M_{\text{흑인선호}} = -.034$ ;

$M_{\text{동남아인선호}} = -.028$ ),  $p > .05$ . 특히 암묵적 수준에서는 백인선호/흑인선호/동남아인 선호에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M_{\text{백인선호}} = -.322$ ;  $M_{\text{흑인선호}} = -.320$ ;  $M_{\text{동남아인선호}} = -.318$ ),  $F(2, 284) = 0.99$ ,  $p > .05$ .

#### 초등학교 사학년 학생

사학년 아동은 명시적 선호나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를 보였다. 명시적 선호도에서 사학년 아동은 성인과 유사하게 외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백인을 가장 선호하고 흑인과 동남아인을 가장 비선호하였다 ( $M_{\text{백인선호}} = -.10$ ;  $M_{\text{흑인선호}} = -.28$ ;  $M_{\text{동남아인선호}} = -.28$ ),  $p < .001$ . 그러나 암묵적 태도에서는 성인과 달리 한국인과 대조하여 동남아인에 대해서 백인과 유사한 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M_{\text{백인선호}} = -.29$ ;  $M_{\text{흑인선호}} = -.46$ ;  $M_{\text{동남아인선호}} = -.28$ ),  $F(2, 284) = 6.87$ ,  $p < .01$ .

연구 1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초등학생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모두 내집단 선호 경향을 일관되게 나타냈다. 초등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는 연령 변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학년변수에 따른 인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명시적 수준에서 한국의 초등학생은 학년이 증가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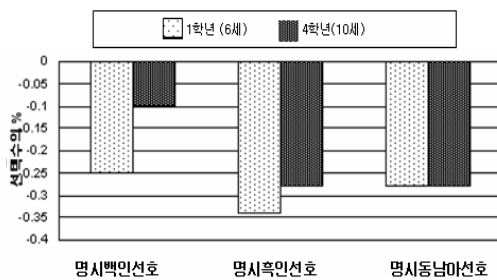


그림 1. 학년별 명시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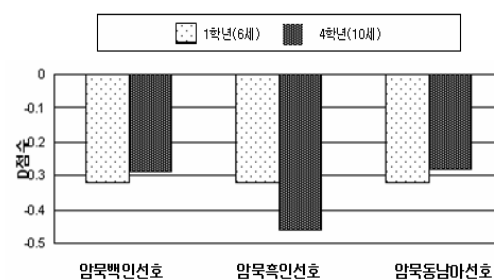


그림 2. 학년별 암묵적 태도

따라 내집단 선호가 감소하는 반면, 외집단인 백인과 흑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암묵적 수준에서는 한국인과 대조하여 흑인을 비선호하는 편견적 태도가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각 학년별로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일학년 아동들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이미 내집단 선호가 뚜렷한 반면,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은 전반적으로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를 보였다. 외집단에 대해서는 명시적 수준에서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암묵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내집단 선호가 감소하지 않았고 흑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가 더 증가하여,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상당한 괴리를 나타냈다.

## 연구 2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피험자였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마다 두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두 학급은 통제집단으로 하였다.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는 동영상 프로

그램의 시청 -> 시청한 것에 대한 내용 확인 -> 주제에 관한 간단한 토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기 당 총 소요 시간은 30분으로 3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첫 회기에 상영되는 동영상 프로그램은 주변 사물들을 소재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각색하고 편집하여 만들어졌다. 두 번째 회기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탈 편견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세 번째 회기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외모로 인해 놀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프로그램이다. 세 회기의 동영상 프로그램은 간접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부터 직접적이고 주관적이며 감정에 호소하는 탈 편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점층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각색되고 편집되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학습자는 일상의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해 다양한 색깔과 모습을 시청함으로써, 세상은 다양한 모습과 색깔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둘째, 피부색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자는 옳지 않음을 인식하고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기대효과를 높이고 지식, 정서와 행동의 측면을 포함하는 태도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영상 프로그램의 시청, 시청 후 질문지 작성(사학년)이나 교사의 질문을 통한 내용 확인(일학년), 시청한 내용에 관해 담임교사와 함께 토론시간 갖기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아동용 명시적 검사 질문지**

실험 1과 동일하게 명시적 태도검사(호감도/ 신뢰도/사회적 거리감)와 명시적 선호도 검사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로 구성되었다.

**아동용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실험 1과 동일하게 성인용 IAT를 아동에게 친근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백인-한국인 IAT(백인선호도), 흑인-한국인 IAT(흑인선호도), 동남아인-한국인 IAT(동남아인 선호도)로 총 3세트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

본 실험은 초등학교 일학년과 사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년마다 두 학급은 실험집단, 나머지 두 학급은 통제집단으로 무선 선정되었다. 연구자는 실험 실시 전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학급의 담임교사들(일학년 담임교사 2명, 사학년 담임교사 2명)에게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실시방법을 설명하였으며, 교사들과 함께 영상물을 시청한 뒤 프로그램 진행에 관해 질문과 논의하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험절차는 컴퓨터 실습시간을 활용하여 일학년의 4학급(실험학급 2, 통제학급 2)과 사학년 4학급(실험학급 2, 통제학급 2)을 대상으로 3세트의 암묵적 연합검사 (백인-한국인 IAT, 흑인-한국인 IAT, 동남아인-한국인 IAT)와 아동용 명시적 검사 질문지를 사전검사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후,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학급들은(일학년 2학급, 사학년 2학급) 교실에

서 일주일에 걸쳐 각 학급의 담임교사의 주도 하에 3회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먼저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한 뒤, 일학년의 실험학급들은 각 반 담임교사가 시청한 동영상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써 시청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한 내용에 관해 간단한 논의시간을 가졌다. 사학년의 실험학급에서는 각 반 담임교사의 주도 하에 다문화교육 영상물을 시청한 뒤 질문지를 통해 시청한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확인한 뒤 교육내용에 관해 간단한 논의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주도 하에 시행되었으며, 사전과 사후 검사로서 명시적 검사 질문지와 암묵적 연합검사는 컴퓨터 실습실에서 본 연구자를 포함한 5-7명의 보조연구자들에 의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모두 실시되었다. 본 실험은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2008년 7월2일부터 7월11일까지 수행되었다.

자료분석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에 따라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 명시적 선호도와 암묵적 태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과 사후 검사를 통해 얻은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측정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실험/통제여부) × 2(성별) × 3혹은 4(인종)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변량분석을 하였고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에 의한 변수이다.

결 과



### 프로그램 회기별 분석

본 연구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 동영상 프로그램 시청 -> 내용확인 -> 내용에 대한 간단한 토론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학년과 사학년 학급 중에서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총 네 학급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걸쳐 약 30분간 3회기가 각 학급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 확인은 일학년 경우 독해능력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질문을 통해 이뤄졌고, 사학년에게는 질문지를 통해 내용확인을 하였다. 사학년 중에서 실험집단이었던 두 학급에게 매 회기 동영상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후,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식 획득의 변화

탈 편견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정답률은 대부분 90% 이상이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김밥처럼 다양한 맛을 내서 좋다(88%), 피부와 모습이 조금 다른 코시안 아동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91%)이었다. 오랫동안 단일한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기존의 고정관념과 달리 다양한 모습과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항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 정서적 측면의 변화

매 회기마다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들은 프로그램을 시청 후, “피부색이 다른 또래 아이가 놀림 당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기분이 좋다(1점)에서 기분이 나쁘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서 공감하는 정도를 평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회기에 따라 공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53) = 6.12, p < .01$ . 회기별로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첫째 날과 셋째 날 ( $M$  첫째 날 = 4.56,  $SE = .08$ ;  $M$  셋째 날 = 4.80,  $SE = .05, p < .01$ ), 둘째 날과 셋째 날 ( $M$  둘째 날 = 4.61,  $SE = .08$ ;  $M$  셋째 날 = 4.80,  $SE = .05, p < .05$ ) 간에는 공감정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첫째 날과 둘째 날 간에는 공감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프로그램을 구성, 편집할 당시에 점강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제작자의 의도와 부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태도의 변화

매 회기마다 사학년 아동들은 프로그램 시청 후, “피부색이 다른 또래아이를 만나면 나는 그 아이와 같이 놀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같이 놀지 않는다(1점)에서 같이 논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서 태도변화를 평정하였다. 회기에 따라 행동적 측면의 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F(2,106) = 1.65, p = .20$ , 성별과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2,106) = .72, p = .49$ . 요약해볼 때, 3회기에 걸친 탈 편견적 다문화 프로그램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메시지의 전달이 적절히 이뤄졌으며, 정서적인 면에서도 공감 반응이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셋째 날의 프로그램에서 많은 공감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래 프로그램 구성 시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태도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의 면에서 유의한 수준의 태도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지 평균 동일성에 대한 t-검증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일학년과 사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명시적 선호도검사, 암묵적 태도검사의 평균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사전에 동질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얻은 차이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실험/통제집단) x 2(학년) x 2(사전사후)의 3원 혼합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 변수는 반복측정에 의한 피험자 내 변수이다.

### 명시적 태도의 변화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평정척도를 통해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의 네 영역에서 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각 인종에 대한 순위를 역처리한 후 점수화하였다. 네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할수록 그 집단에 대한 호감도/신뢰도/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명시적 태도의 평균 점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 호감도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참여여부에 따라 명시적 수준에서 한국/백/흑/동남아인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에서 한국인, 백인, 동남아인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호감도는 실험집단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매우 상승하였다. 흑인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효과.** 흑인에 대한 호감도에서 집단이나 학년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다. 피험자 내 변인 중 사전/사후 요인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  $F(1,219) = 9.96, p < .01$ , 흑인에 대한 호감도 우선순위는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상승하였다( $M_{사전} = 1.63$ ;  $M_{사후} = 1.81, p < .01$ ).

**상호작용.** 흑인에 대한 호감도에서 사전/사후요인 x 집단 간 이원상호작용 효과와  $F(1,2191) = 7.01, p < .01$ , 사전/사후요인 x 학년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1,219) = 3.91, p < .05$ . 사전/사후요인 x 집단 간 이원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후 짝비교를 해본 결과,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흑인에 대한 호감도 우선순위가 매우 상승하였다( $M_{실험\ 사전\ 점수} = 1.56$ ;  $M_{실험\ 사후\ 점수} = 1.91, p < .001$ ). 사전/사후요인 x 학년 간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후 짝비교를 해본 결과, 사후검사에서 초등학교 사학년은 일학년보다 흑인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상승하였다( $M_{일학년\ 사후\ 점수} = 1.63$ ;  $M_{사학년\ 사후\ 점수} = 1.94, p < .001$ ). 학년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분석해본 결과, 초등 일학년은 실험집단에서 흑인호감도 우선순위가 사전보다 사후에 더 유의한 증가를 보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명시적 태도

		명시적 태도 : 호감도							
		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아인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일학년	실험	3.89 (.46)	3.67 (.84)	2.60 (.76)	2.49 (.88)	1.52 (.75)	1.76 (.93)	2.00(.73)	2.09 (.78)
	비교	3.90 (.44)	3.80 (.63)	2.53 (.85)	2.57 (.83)	1.72 (.76)	1.62 (.85)	1.85(.73)	2.10 (.80)
사학년	실험	3.66 (.65)	3.43 (.89)	2.94 (.84)	2.71 (.95)	1.60 (.79)	2.06(1.03)	1.79(.66)	1.79 (.84)
	비교	3.68 (.74)	3.37 (.96)	2.70 (.82)	2.98 (.83)	1.66 (.92)	1.82 (.97)	1.95(.72)	1.80 (.77)
		명시적 태도 : 신뢰도							
일학년	실험	3.76 (.58)	3.71 (.66)	2.55 (.86)	2.65 (.78)	1.83 (.91)	1.85 (.92)	1.87 (.85)	1.81 (.89)
	비교	3.77 (.65)	3.77 (.59)	2.45 (.75)	2.40 (.85)	1.88 (.96)	1.83 (.99)	1.90 (.90)	2.08 (.89)
사학년	실험	3.17(1.02)	3.28 (.94)	2.21 (1.00)	2.19 (1.0)	2.44(1.18)	2.50(1.15)	2.19 (.99)	2.02 (.96)
	비교	3.28(1.14)	3.36 (.99)	2.31(1.03)	2.64 (.97)	2.48(1.05)	2.41 (.94)	1.93 (.81)	1.60 (.82)
		명시적 태도 : 친구삼고 싶은 정도							
일학년	실험	3.54 (.88)	3.48(1.02)	2.65 (.93)	2.58 (.94)	1.62 (.88)	1.77 (.82)	2.23 (.85)	2.19 (.94)
	비교	3.72 (.76)	3.77 (.72)	2.64 (.79)	2.74 (.74)	1.76 (.88)	1.62 (.75)	1.91 (.81)	1.98 (.86)
사학년	실험	3.26(1.12)	3.17(1.11)	2.91 (.93)	2.92 (.96)	1.85 (.89)	2.02 (.97)	2.00 (.88)	1.91 (.88)
	비교	3.30(1.05)	3.18(1.05)	2.98 (.90)	3.12 (.85)	1.90 (.95)	2.03 (.95)	1.86 (.79)	1.68 (.76)
		명시적 태도 : 내집단 포함 정도							
일학년	실험	3.67 (.84)	3.53 (.98)	2.52 (.84)	2.74 (.87)	1.72 (.89)	1.87 (.88)	2.11 (.85)	1.83 (.75)
	비교	3.61 (.94)	3.75 (.72)	2.64 (.77)	2.57 (.73)	1.86 (.98)	1.66 (.83)	1.91 (.80)	2.03 (.90)
사학년	실험	3.30(1.00)	3.17(1.09)	2.89 (.90)	2.93 (1.03)	2.02(1.05)	2.09 (.96)	1.80 (.79)	1.81 (.80)
	비교	3.38 (.96)	3.07(1.12)	3.00 (.87)	3.07 (.83)	1.79 (.94)	2.16 (.98)	1.86 (.77)	1.79 (.92)

\*p<.05, \*\*p<.01, \*\*\*p<.001

였다( $M_{\text{실험 사전점수}} = 1.52$ , ;  $M_{\text{실험 사후점수}} = 1.76$ ),  $p < .05$ .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흑인 호감도가 사후에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M_{\text{비교 사전점수}} = 1.72$ ;  $M_{\text{비교 사후점수}} = 1.62$ ).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들은 실험집단에서 흑인에 대한 호감도 우선순위가 사후에 매우 놀라운 증가를 보였다( $M_{\text{실험 사전점수}} = 1.60$ ;  $M_{\text{실험 사후점수}} = 2.06$ ),  $p < .001$ . 또한 통제집단에서도 사전보다 사후에 흑인에 대한 호감도 우선순위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M_{\text{비교 사전점수}} = 1.66$ ;  $M_{\text{비교 사후점수}} = 1.82$ ). 학년별로는 사학년 아동이 사전보다 사후검사에서 흑인에 대한 호감도가 초등 일학년 아동보다 더 상승하였다.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초등 일학년 아동의 경우 사전보다 사후검사에서 더 호감도가 상승하였다. 반면에 백인에 대한 호감도는 실험집단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며,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우선순위는 학년증가에 따라 명시

적 수준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신뢰도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참석여부에 따라 명시적 수준에서 한국/백/흑/동남아인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 연구한 결과,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증가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 사학년 아동은 초등 일학년 아동에 비해 한국인( $M_{\text{초등 일학년}} = 3.75$ ;  $M_{\text{사학년}} = 3.28$ ,  $F(1,221) = 25.31$ ,  $p < .001$ ), 과 백인( $M_{\text{초등 일학년}} = 2.60$ ;  $M_{\text{사학년}} = 2.20$ ,  $F(1,221) = 4.77$ ,  $p < .001$ )에 대한 신뢰도 우선순위가 감소를 보였다 반면에 흑인과( $M_{\text{초등 일학년}} = 1.85$ ;  $M_{\text{사학년}} = 2.46$ ,  $F(1, 220) = 29.89$ ,  $p < .001$ ), 동남아인에 대한 신뢰도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 $M_{\text{초등 일학년 점수}} = 1.84$ ;  $M_{\text{사학년 점수}} = 2.11$ ,  $F(1,220) = 7.13$ ,  $p < .01$ ).

표 6. 흑인 호감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df	SS	MS	F
호감도	흑인	피험자 간				
		집단	1	.11	.11	.09
		학년	1	1.96	1.96	1.71
		집단*학년	1	.36	.36	.33
	오차	219	251.02	1.15		
	피험자 내	사전사후	1	3.96	3.96	<b>9.96**</b>
		사전사후*집단	1	2.79	2.79	<b>7.01**</b>
		사전사후*학년	1	1.55	1.55	<b>3.91*</b>
		사전사후*집단*학년	1	.02	.02	0.04
		오차	219	86.98	.40	

\* $p < .05$ , \*\* $p < .01$ , \*\*\* $p < .001$

**친구삼고 싶은 정도**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참석여부에 따라 명시적 수준에서 한국/백/흑/동남아인을 친구삼고 싶은 정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한국인,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대한 변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증가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 사학년 아동은 초등 일학년 아동에 비해 한국인에( $M_{초등 일학년} = 3.63$ ;  $M_{사학년} = 3.23$ ,  $F(1,221) = 12.38$ ,  $p < .001$ ) 대해 친구삼고 싶은 정도가 감소되었다 백인( $M_{초등 일학년} =$

$2.65$ ;  $M_{사학년} = 2.96$ ,  $F(1,219) = 11.48$   $p < .01$ ). 과 흑인( $M_{초등 일학년} = 1.69$ ;  $M_{사학년} = 1.95$ ,  $F(1,218) = 6.32$ ,  $p < .01$ )을 친구삼고 싶어 하는 정도는 증가를 보였다.

**내집단 포함 정도**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참석여부에 따라 명시적 수준에서 한국/백/흑/동남아인을 내집단으로 포함하는 정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참가에 따라 한국/백/흑/동남아인에 대한 변화 효과는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명시적 선호도								
		백인 선호			흑인 선호			동남아인 선호		
		N	사전	사후	N	사전	사후	N	사전	사후
일학년	실험	56	28.25 (31.51)	29.44 (30.33)	56	12.65 (23.38)	9.62 (21.77)	56	25.74 (32.01)	23.91 (30.54)
	비교	61	22.07 (32.12)	17.10 (28.96)	61	19.33 (34.29)	8.85 (24.39)	61	19.83 (30.70)	15.43 (28.90)
사학년	실험	58	41.74 (38.84)	43.54 (35.25)	58	26.41 (36.74)	32.54 (37.37)	58	26.89 (28.72)	35.59 (36.45)
	비교	59	35.48 (36.84)	43.27 (40.61)	59	18.60 (30.75)	19.75 (33.09)	59	17.42 (29.47)	22.67 (32.11)
		암묵적 태도								
		N	사전	사후	N	사전	사후	N	사전	사후
일학년	실험	48	-0.26 (.41)	-0.12 (.55)	54	-0.33 (.32)	-0.19 (.37)	45	-0.32 (.49)	-0.17 (.46)
	비교	46	-0.35 (.46)	-0.18 (.41)	61	-0.34 (.34)	-0.28 (.42)	45	-0.31 (.34)	-0.23 (.40)
사학년	실험	52	-0.29 (.45)	-0.30 (.49)	52	-0.44 (.42)	-0.37 (.43)	52	-0.28 (.44)	-0.36 (.37)
	비교	51	-0.22 (.41)	-0.35 (.46)	49	-0.43 (.39)	-0.39 (.35)	51	-0.24 (.36)	-0.32 (.32)

\*  $p < .05$ , \*\*  $p < .01$ , \*\*\*  $p < .001$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증가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 한국인을 내집단에 포함하는 정도는 감소를 보인 반면( $M_{\text{초등 일학년}} = 3.64$ ;  $M_{\text{사학년}} = 3.23$ ,  $F(1,222) = 14.26$ ,  $p < .001$ ), 백인( $M_{\text{초등 일학년}} = 2.62$ ;  $M_{\text{사학년}} = 2.97$ ,  $F(1,218) = 15.17$ ,  $p < .001$ )과 흑인( $M_{\text{초등 일학년}} = 1.78$ ;  $M_{\text{사학년}} = 2.02$ ,  $F(1,218) = 5.26$ ,  $p < .05$ ) 내집단에 포함하는 정도는 증가를 보였다.

#### 명시적 선호도 변화

암묵적 연합검사와 대비되는 인종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 검사에서는 백인-한국인, 흑인-한국인, 동남아인-한국인으로 둘 씩 짝 지워진 사진 중에서 더 선호하는 사진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선택된 사진의 총 개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뒤, 사전과 사후로 산출된 점수들을 토대로 실험/통제집단과 학년별로 분석하였다(표 7).

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학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초등학교 사학년생은 일학년보다 한국인과 대비하여 백인과( $M_{\text{초등 일학년}} = 24.21$ ;  $M_{\text{사학년}} = 41.01$ ,  $F(1,221) = 16.13$ ,  $p < .001$ ), 흑인( $M_{\text{초등 일학년}} = 12.61$ ;  $M_{\text{사학년}} = 24.32$ ,  $F(1,222) = 11.44$ ,  $p < .001$ )을 선호하는 정도가 더 상승하였다. 한국인과 대비하여 동남아인에 대한 선호도는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았다( $M_{\text{비교}} = 18.84$ ;  $M_{\text{실험}} = 28.03$ ,  $F(1,221) = 6.36$ ,  $p < .03$ ). 또한 사전/사후 x 학년변인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F(1,221) = 6.37$ ,  $p < .05$ . 즉, 초등 일학년 아동은 한국인과 대비된 동남아인 선호도에서 사전과 사후 간에 차

이가 없었으나, 사학년 아동은 사후에 동남아인에 대해 명시적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M_{\text{사전점수}} = 22.16$ ;  $M_{\text{사후점수}} = 29.13$ ).

#### 암묵적 태도 변화

인종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암묵적 수준에서 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반면에 학년에 따른 주효과를 나타내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은 흑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의 평균 점수가 일학년 아동보다 더 낮았다( $M_{\text{초등 일학년}} = -0.28$ ;  $M_{\text{사학년}} = -0.41$ ,  $F(1,163) = 7.44$ ,  $p < .01$ ). 또한 피험자 내 변인 중에서 사전/사후 요인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흑인에 대한 비선호도가 감소하였다( $M_{\text{사전점수}} = -.39$ ;  $M_{\text{사후점수}} = -.31$ ,  $F(1,163) = 4.17$ ,  $p < .05$ ).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x 학년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학년별로 사전/사후 동남아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의 단순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초등 일학년 아동은  $p = 0.1$ 수준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암묵적인 동남아인선호도가 증가하였다( $M_{\text{초등 일학년 사전점수}} = -.33$ ;  $M_{\text{초등 일학년 사후점수}} = -.20$ ,  $F(1,152) = 6.19$ ,  $p = .51$ ).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명시적 수준과 달리, 암묵적 수준에서 흑인이나 동남아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연구 2의 결과를 요약하면, 초등학교 일학년과 사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탈 편견적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명시적 수준에서 한국인/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태도(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이 포함된 명시적 태도

지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흑인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아져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들은 실험과 통제집단이 모두 사후검사에서 흑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지만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흑인에 대해 훨씬 더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일학년은 실험집단은 사후검사에서 흑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사후검사에서 오히려 흑인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하였다. 각 인종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검사와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탈 편견적 방향으로의 태도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 연구 1. 인종에 대한 태도 발달

본 연구 1에서는 인종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종범주로 구분되는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 및 변화하는 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 초등학생들은 내집단 선호를 일관되게 나타냈다. 학년(초등학교 일학년/사학년)과 성별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명시적 수준에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내집단에 대한 선호적 태도가 감소하는 반면, 외집단인 백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선호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흑인에 대한 선호도도 연령증가와 함께 명시적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암묵적 수준에서는 학년이 높아

짐에 따라 내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감소되지 않았으며, 흑인에 대해 좀 더 비선호적인 편견적 태도를 나타냈다. 성별에 대한 태도는 연령변수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명시적 수준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내집단인 한국인들 친구삼고 싶은 정도가 더 많은 반면, 여학생은 흑인을 친구삼고 싶어 하는 정도가 남학생보다 더 많은 점으로 미루어, 명시적 수준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더 탈 편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암묵적 수준에서는 여학생인 흑인에 대해 남성보다 더 강한 비선호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여학생이 두려움과 같은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에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쉬운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를 살펴본 연구결과(노경란, 방희정, 2008)와 비교해볼 때, 초등학생들도 성인과 유사하게 강한 내집단 선호경향, 외집단에 대해 백인선호경향, 연령증가에 따라 흑인에 대해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괴리를 나타냈다. 그러나 성인들의 태도와는 달리 한국 초등학생들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동남아인에 대해 편견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한국 초등학생들은 성인들의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아직 내재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각 학년별 인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일학년(6세) 학생들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모두 강한 내집단선호경향을 나타냈으나 외집단에 대해서는 백인/흑인/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6세, 10세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종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

도를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다(Dunham, Baron과 Banaji, 2006). Dunham 등(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6세의 미국 및 일본 아동들은 외집단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의 고저에 따른 구분없이 인종에 대해 미분화된 태도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들(10세)은 내집단 선호적 태도가 명시적 태도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명시적 선호나 암묵적 수준에서는 내집단 선호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들은 외집단인 백인에 대해 가장 높은 사회적 친근감(친구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을 나타냈는데, 이는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외국 주류문화를 동경하고 모방하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Lo Coco, Inguglia와 Pace, 2007; 김문수, 박소현 역, 2006). 또한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은 발달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시기에 해당되는데, 인종에 대한 태도에서도 아동기 특성과 성인기의 특성을 모두 나타냈다. 초등학교 사학년 아동들은 성인들과 유사하게 외집단에 대해서 백인을 선호하고 흑인을 비선호하는 이중적 태도를 나타냈다(노경란과 방희정, 2008). 그러면서도,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암묵적 수준에서 성인과 달리 비선호적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남아인에 대해 백인과 유사한 정도로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성인들의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아직 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학년(연령)변수는 인종에 대한 태도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일학년, 사학년 아동과 성인은 인종에 대한 태도가 각각

학년별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인종에 대한 태도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 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년에 따른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나 동기적 요인들과 같은 발달적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인지적 모델에 따르면 5-7세에는 인종적 편견이 가장 절정을 이루다가, 9세가 되면 점차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초등학교 일학년 아동(6세)이 명시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내집단선호를 나타냈으며 사학년 아동들(10세)은 내집단 선호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점으로 미루어, 사회인지적 입장에서 주장하듯이 미숙한 아동들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면서 내집단 우호의 편견적 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외집단에 대해서 초등학교 사학년(10세) 아동들은 흑인에 대해 명시적 수준에서 선호도가 증가하나 암묵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흑인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가 증가하여, 흑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불일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사학년(10세) 전후로 인종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암묵적 태도이론(Dunham 등, 2006)과 일치한다.

연구 1에서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발달과정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일학년(6세)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뚜렷한 내집단 선호를 나타냈으며 외집단에 대한 태도 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초등학교 사학년(10세) 흑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괴리를 보여, 외국의 아동들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종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명시적 수준 뿐 만 아니라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측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집단에 대한 태도는 명시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인지이론적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암묵적 태도는 사회정체성이론과 암묵적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o Coco 등(2005)은 사회인지이론은 인지발달과 인종태도의 발달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유용한 반면에, 사회정체성이론은 인종태도와 관련하여 집단 간 역동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인종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 2. 인종에 대한 태도 변화

본 연구 2에서는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태도변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탈 편견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비록 단기간에 걸친 짧은 프로그램이었지만 명시적 수준에서 초등학생들의 흑인에 대한 호감도 증가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실험집단에 대한 프로그램 회기별 설문지 조사결과에서도 인지적인 면과 공감정서의 측면에서는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태도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명시적 태도 중에서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재범주화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프로그램 회기별 설문지 조사결과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의지 면에서도 유의한 수준의 태도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학습적인 요인이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탈 편견적 태도의 변화가 지속적이며 행동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나아가 암묵적인 태도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적인 요소 이외에도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탈 편견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학습적 요소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 가족적 영향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인지나 동기 요인들 외에도 민경환(1989)은 편견감소를 위해서 편견이 형성된 뒤에 교정하는 것보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격을 지니며, 사회통념적인 집단 구분 속에 자신과 타인을 고착시켜놓지 않고, 자기정체를 여러 조망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일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습적 요인 외에도 접촉경험이나 사회 규범 등이 있다(Brewer와 Brown, 1998; Fiske, 1998). Pettigrew(1998)는 외집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집단구성원들은 서로 상대방을 개인적 인성과 특성으로 보면서 탈범주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계속 접촉을 통해 그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평가가 바뀌면서 재범주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ronson 등(1978)은 초등학교에서 “jigsaw system”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협력적 상황에서 집단을 서로 배워가면서 집단 간 고정관념과 편견이 줄어들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최근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이 항상 효과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역할 바꾸기(role-playing)나 다른 관점 취해보기(perspective-taking)가 공감을 늘리고 편견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Rudman, Phelan 및 Heppen(2007)에 따르면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태도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암묵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발달적으로 아동기의 정서적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질적인 접촉이 암묵적인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암묵적인 수준에서의 태도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Aronson 등(2005)이 제시하듯이 다양한 범주의 사회집단과 친밀하며 다면적인 접촉, 공통된 목표하에 집단 간 협동하고 상호 의존하는 분위기, 그리고 평등, 다양성, 관용을 선호하는 사회규범과 같은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종에 대한 태도발달을 알아보기 종단적 연구 대신에 횡단적 연구로 대체한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태도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학년층(연령층)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 2에서 자체 편집, 제작하여 사용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은 3회기로 구성되어 일주일 동안 실시된 프로그램이므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에 기간이나 내용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횡수로 회기를 늘려 본 연구의 탈 편견적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흑인에 대한 호감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감 영역에서 다양한 인종집단을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재범주화과정과 탈 편견적인 방향으로의 태도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김문수, 박소현역 (2006). 학습심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영옥 (2002). 유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연구. 유아교육학론집, 6(2), 5-38.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김현정의 7명 (2004), 청년심리학. 박학사.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노경란, 방희정 (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75-92.  
박지희 (2002). 다문화 반영도서를 통한 토의활동이 인종에 대한 유아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화여자대학 유아교육과 (2008), 다문화 교육의 실제. 서울: 다음세대.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4). 내·외집단 구별정보가 외현 및 암묵적 편견에 미치는 비교적 영향: 성 편견과 지역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5-186.  
이광규 (1998). 반 편견 교육과정을 통한 인간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 학술세미나.  
임기순 (2005). 부정적 태도를 숨기는 상황에서의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와의 관계.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희 (1996).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교수 방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

- 신논문집.
- 장영희, 이숙재, 김혜실, 김정화 (1999). 유아의 인종 인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1), 95-110.
- 정태연, 송관재 (2006). 한국인의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 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49 -68.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미숙, 김경숙, 윤현숙 (2008). 다문화교육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 및 다문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2).
- 최인철 (2008). 다문화 사회의 심리적 도전과 과제. 2008 한국심리학회 통합심포지엄, 워크숍 자료집.
- 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39-69.
- 한민, 김용희, 이동하, 최진이 (2008). 한국사람들의 인종에 대한 이중적 태도. 2008 한국심리학회 통합심포지엄, 워크숍 자료집.
- 한민, 김용희, 이동하, 최진이 (2008). 한국사람들의 인종에 대한 이중적 태도,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Aboud, F. (1977). Interest in ethnic information: A cross-cultural developmental stud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9, 134-146.
- Aboud, F. (1988). *Children & Prejudice*. Oxford: Basil Blackwell.
- Aronson, E., Timothy, D., & Robin, A. (2005). *Social Psychology*. N. J.: Pearson Education International.
- Banaji, M. R., Baron, A. S., Dunham, Y., & Olson, K. (2007). The Development of Intergroup social cognition (pp.87-102). In M. Killen & S. Levy (Eds.) *Inter group Relationships: An integrative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 Baron, A. S., & Banaji, M. R. (2006). The Development of Implicit Attitudes: Evidence of race evaluations from 6, 10, and adulthood. *Psychological Science* 17(1).
- Barrett, M. D., & Buchanan-Barrow, E. (2005). *Children's Understanding of Society Studi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Bazerman, M. H., & Banaji, M. R. (2004). The social psychology of ordinary ethical failures. *Social Justice Research*, 17(2), 111-115.
- Berry, J. W. (1992). *Cross 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57(3), 615-631.
- Bigler, R. S., & Liben, L. S. (2006). A developmental intergroup theory of social stereotypes and prejudice.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4, 39-89, Blackwell Publishers.
- Brewer, M. B., & Brown, R. J. (1988). Intergroup relations. In D.T. Gilbert, S.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 pp.554-594). New York: McGraw-Hill.
- Brown, R. (1986).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 York: Free Press.
- Cunningham, W.A. *et al.* (2004). Seperable neural components in the processing of black and white faces. *Psychological Science*, 15, 62-68.
- Dovidio, J. E., & Gaertner, S. L. (1986).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London: Academic Press.
- Dovidio, J. E., Gaertner, S. L., & Kawakami, K. (2002). Implicit and Explicit Prejudice and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1, pp. 62-68.
- Doyle, A. B., Beaudet, J., & Aboud, F. E. (1987). Developmental patterns in the flexibility of children's ethnic attitud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3-18.
- Dunham, Y., Baron, A. S., Banaji, M. R. (2006). From American City to Japanese Village: the omnipresence of implicit rac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77, 1268-1281.
- Dunham, Y., Baron, A. S., Banaji, M. R. (2007). Children and social groups: A developmental analysis of implicit consistency among Hispanic Americans. *Self and Identity*, 6, pp. 238-255.
- Dunham, Y., Baron, A. S., & Banaji, M. R. (2008). The development of implicit intergroup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2, 248-253.
- Fazio, R. H. *et al*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013-1027.
- Fiske, S. T. (198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 pp.554-594). New York: McGraw-Hill.
- Gottfried, A. W., & Gottfried, A. E. (1974). Influence of social power vs. status envy modelled behaviors on children's preferences for models. *Psychological Reports*, 34, 1147-1150.
- Greenman, N. P., & Kimmel, E. B (1995). The road to multicultural education: Potholes of resistanc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6(5), 360-368.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1.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5, No. 2, pp. 197-216).
- Greenwald, A. G., Poehlman, A., Uhlmann, E. & Banaji, M. R. (in press).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Hirschfeld, L. A. (1989). *Race in the making: Cognition, Culture, and the Child's Construction of Human Kinds*. MIT Press.
- Jahoda, G., Thomson, S. S., & Bhatt, S. (1972). Ethnic identity and preferences among Asian immigrant children in Glasgow: A replicated stud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19-32.
- Laosa, L. (1984). Social policies toward children of diverse ethnic racial and language groups in the United States. In H. Stevenson &

- A.Siegel(Eds.), *Child development research and social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uman, E. O. (1965).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 6-36.
- Lo Coco, A., Inguglia, C., & Pace, U. (2007). Children's understanding of ethnic belonging and the development of ethnic attitudes (pp. 223-250).
- Milner, D. (1973). Racial identification and preference in "black" British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81-295.
- Moody, J. (2001). Race, school integration, and friendship segregation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3), 679-716.
- NeSEale, A. R. (2000).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ethnic preferences and social cogni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1-519.
- Nelson, T. D.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Allyn and Bacon.
- Nosek, B. A.,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7).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t age 7: A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review (pp. 265-292). In J.A. Bargh(Ed.), *Automatic processes in social thinking and behavior*. Psychology Press.
- Pascalis, O. et al. (1995). Mother's face recognition in neonates: a replication and an extension. *Infant Behavioral Development*, 17, 79-85.
- Phelps, E. A. et al. (2000). Performance on indirect measures of race evaluation predicts amygdala activation.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2:5, 729-738.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hinney, J. S. (1989). Stages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in minority group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1-2), 34-49.
- Piaget, J. E., & Weil, A. (1951). The development in children of the idea of the homeland and of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Science Bulletin*, 3, 561-576.
- Poehlman, T. A., Uhlmann, E.,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7).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Unpublished manuscript.
- Rudman, A., Phelan, E., & Heppen, B. (2007). Developmental sources of implicit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700-1713.
- Santrock, J. W. (2004). *Adolescence*. Boston: McGraw-Hill,
- Sleeter, C. E., & Grant, C. A. (2003).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John Wiley & Sons, Inc.
- Sloman, S. (1996). The empirical case for two systems of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19,3-22.
- Smith, P. K. (2003). Pla and peer relations in A. Slater & G. Bremner (Eds.), *An introduction to developmental psychology* (pp. 311-333). Malden, MA:Blackwell.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Austin & S. Worchel(Eds.),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D.,& Wetherell M.S.(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asic Blackwell.
- Vaughan, G. (1987). A social psychological model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In J.S. Phinney & M.J. Rotheram(Eds.), Children's ethnic socialization.
- Verkuyten, M. (1992). Ethnic group preferences and the evaluation of ethnic identity among adolescent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 741-750.
- Walker-Andrews, A. S. *et al.* (1991). Infants' bimodal perception of gender. *Ecological Psychology*. 3, 55-75.
- Williams J. E. & Morland, J. K. (1976), *Race, Color, and the Young Child*.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ilson, D., Lindsey, S., &Schooler, Y. (2000). A Model of dual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07(1), 101-126.
- Yawkey, T. D., & Blackwell, J. (1974). Attitudes of 4-year old urban black children toward themselves and whites based upon multi-ethnic social studies materials and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7, 373-377.
- 논문접수일 : 2009. 01. 19  
1차 심사일 : 2009. 02. 02  
게재확정일 : 2009. 02. 21

## **The development of explicit and implicit race attitudes in Korean elementary students and race attitud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age**

**Kyung Ran Row**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xplicit and implicit race attitudes differ according to age and gender from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Korean elementary students. The study also investigated the efficacy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 chang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thesis consists of two parts. In Study 1, elementary school students(first grade:117, fourth grade:117) completed Explicit Attitudes Rating Scales, Explicit Preference Test, and Child Implicit Association Tests (Korean-White/Korean-Black/ Korean-Southeast Asian IATs). The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Korean/White/Black/Southeast Asian were examined with two-way MANOVA.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s age increases, in-group preference/out-group bias decrease on the explicit level. In contrast, on the implicit level, as age increases, in-group preference/out-group bias do not decrease. Rather, prejudiced attitudes toward blacks increase. Study 2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 change toward rac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rogram conveying an anti-bias message consists of three sessions, and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watching video clips, confirming contents and short discussion. Two classes in the program and two classes in comparative groups on the first and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were assessed. The results showed that black preference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in the first and the fourth grade elementary students on the explicit attitude level, but not on the implicit level.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Korean, race, explicit, implicit, attitude development, attitude change*